

후보군 6~7명...경선룰싸고 신경전 예상

■ 민주 대선후보 어떻게 선출하나

6·9全大로 8월 중순 후보 확정 가능성

안철수 원장 당내 경선 참여 최대 변수

새누리당이 대선후보 경선 룰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주하는 여권과 달리 아권에서는 6~7명의 후보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어 경선룰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되면 각 후보 진영이 유리한 경선룰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을 통하도록 당헌에 규정된 새누리당과 달리 두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인단 구성을 비롯한 경선 방법, 대통령 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당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당은 신임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대선기획단을 발족시켜 세부적인 경선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대선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 당헌에서는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실시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우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22일까지는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하지만, 신임 지도부 선출 전대 날짜가 6월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후보 선출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 경선 시작, 8월 중순 후보 확정'의 일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당직자는 "지난 17대 대선 때 후보 결정이 10월에야 이뤄져서 본선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일찍 후보를 뽑도록 했지만, 이번엔 당 지도부 개편과 국회 개원 등이 겹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의 핵심 변수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의 참여 여부다.

정치권은 안 원장의 대선 출마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 원장과의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문성근 대표 대행은 안 원장이 민

주당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할 뒤 단일화를 해야한다면 방법은 여론조사 사뿐인데 여론조사는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민주당의 일장대로 대선후보는 결정된다.

하지만, 비노(비노무현)세력 인사들은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지난 서울시장 경선처럼 여론조사와 국민참여경선 등을 합치는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대권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도 "안 원장 나름의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재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통합진보당 후보나 안 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다시 밟게 돼 아권 전체의 최종 대선 후보 결정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몸싸움방지법안' 처리 무산

여야 수정협상 난항...59개 민생법안도 물건너가

여야의 국회선진화법안(몸싸움방지법안) 수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8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몸싸움방지법은 물론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주 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59개의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및 의원총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후 국회선진화법안 신속처리제 적용요건 완화 등 법안의 일부 수정문제를 놓고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한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가 오후로 연기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내부 비판에 부딪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요구로 뒤늦게 수정 협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을 5분의3(180석)이상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로 규정된 신속처리법안 처리시한도

180일로 줄이며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선정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폭 수정은 가능하지만 원안 골격까지는 바꿀 수 없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속처리법안 요건을 180석에서 150석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속처리제의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줬으나 본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아 주요 쟁점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 내(다음달 28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80일로 줄이며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선정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폭 수정은 가능하지만 원안 골격까지는 바꿀 수 없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속처리법안 요건을 180석에서 150석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속처리제의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줬으나 본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아 주요 쟁점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 내(다음달 28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당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과 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자유수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직 유지”

盧 전대통령 서거 3주기 내달 23일까지

민주당 통합 당재인 상임고문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3주기가 열리는 다음달 23일까지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무현재단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노무현재단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 이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가 이사장직을 책임지고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문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여 5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행사가 끝나는 5월 말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후임 이사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민주당 대표대행을 맡고 있는 문성근 상임운영위원을 이사로 선임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재단 이사장에서 사퇴했다”며 사퇴 배경에 대해 “탈(脫)노무현이 아니라 재단이 누가 되지 않으려고 서울시장 출마 때 사퇴했던 전임 이사장의 선례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진보 명칭

‘진보당’ 변경

통합진보당이 24일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꾸고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및 강령 개정 초안을 이날 발표했다. 당헌 개정 초안 1조는 당명을 진보당이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보당이라는 명칭은 진보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약칭인 탓에 통합진보당이 쓸 수 없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19대 총선에서 당 지지를 2% 넘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되면서 통합진보당이 이 당명을 쓸 수 있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당헌 및 강령 개정안을 다음달 13일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이종행기자 golee@

김문수 “박근혜, 경선룰 고치자며 탈당까지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4일 자신의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룰 변경요구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거부한 데 대해 “과거의 경선 룰 때문에 박 위원장은 탈당하지 않았나”라며 공세를 폈다.

김 지사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수가 룰에 맞춰 경기해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언급에 “박 위원장 자신은 이회창 총재가 압도적 대세이던 2002년 경선 룰

을 고치자고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다 잊어 버린 듯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이경현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이고 근거없는 상대 흠집내기”라며 “경선룰은 탈당 전 받아들여졌지만 정치개혁 요구사

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탈당했고, 그 요구가 곧 받아들여져 복당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 의원은 여권내 비박(비박근혜) 대권주자들이 대선후보 경선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현행 룰(rule)도 국민경선”이라며 “요행을 바란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성근 “MB정권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 촉구

민주당 문성근 대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간 결 및 징계를 당한 언론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사와 공영통신사의 독립적인 사장 선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로 이루어진 공동정책협의회 구성에 합

의했다.

민주당 문성근 대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간 결 및 징계를 당한 언론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사와 공영통신사의 독립적인 사장 선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로 이루어진 공동정책협의회 구성에 합

자본의 총체적 언론장악 의도와 주도자들을 국감과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소속 의원과 당선자, 파업 언론사 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계단에서 ‘언론탄압규탄 및 언론자유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끝까지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은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삼일로점) 02-2276-0687-9 경남 창원점(남해고속터미널) 02-3477-5110 충북 2가점(금강제화) 02-733-0220 송파점(세종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신원리) 03-2421-29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2001)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역)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03-1376-4183 부천점(부천역) 03-2329-4400 남양주점(한빛호수) 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역)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05-1256-7200 울산점(울산역)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80 진주점(진주역) 05-745-9870 대구 동문점(동문역) 05-3425-4440 삼척점(삼척역) 05-3426-1511 남일점(남일역)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역) 05-4244-5110 안동점(안동역) 05-4659-2248 광주 광주점(광주역)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전남 순천점(순천역)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주역) 06-322-5728 호남점(호남역) 06-3346-0198 익산점(익산역) 06-3538-5000 남원점(남원역) 06-3632-2626 대전 대덕점(대덕역) 04-2254-5110 대전 동점(동점)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25-6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553-2988 광주점(광주역)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04-255-5110 대전점(대전역) 04-2222-1177-8 충청점(충청역) 04-3652-1414 경북 김천점(김천역) 03-647-0588 춘천점(춘천역) 0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역) 06-4753-45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통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북문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